

산학협력 이끄는 호남대

CGI 제작사 키노모티브

3D특수영상, 정규교육·현장실습 한번에

기업 맞춤형 인력·기술 제공으로 지역 최고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자리잡은 호남대가 인력양성의 초점을 창의성을 겸비한 실무교육으로 진화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호남대는 올해부터 학생들을 단순 현장실습 차원을 넘어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3차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호남대는 '실무형 교육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각 학과의 특성화와 관련 기업의 인력 및 기술수요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 공학교육의 추세를 반영해 '창의적 종합 설계(Capstone Design)'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창의적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우수 기업을 소개한다.

호남대는 광주의 5대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공학과, 전자·광공학과, 이동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인터넷콘텐츠학과 등 6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키노모티브(대표이사 박용정)는 인터넷콘텐츠학과와 게임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이 회사의 양성 수 제작사가 직접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특정 기술을 습득한 인재 양성교육에 참여했다. 양 이사는 인터넷콘텐츠학과 4학년 정규 교과목(스튜디오 I, II)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해당 기술을 대학에서 미리 익히 학생들은 기업의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이 같은 학과 스튜디오는 학과 전공과 관련된 기술을 정규 교과목을 통해 중점적으로 교육받고, 신기술 트렌드에 따른 교육과정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호남대 산중사업단의 '스튜디오 과정'은 4학년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학과 스튜디오' 1~4학년 중 원하는 학생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정기술 스튜디오'로 나뉜다.

모든 스튜디오 과정엔 호남대 교수들 뿐 아니라 지역 산업계 전문가가 강사로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



키노모티브 직원들이 영화에 사용될 특수 영상 제작 작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학과 수업, 게임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운영

재교육 없이 현장 바로 투입... 지난해 전원 졸업전 취업

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기술 스튜디오는 15명의 학생만 선발, 방과 후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료자들에게 대한 산업체 선호도가 상당하다. 지난해 특정기술 스튜디오(당시 명칭 '취업연계 실무반')에 참여했던 학생 중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하면 전원 졸업 전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작품활동을 통한 창의적 공학의 실무교육도 성과를 발하고 있다. 창의적 종합 설계(Capstone Design)란 공학계열의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졸업 시 졸업 논문 대신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토록 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설계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설계 교육과정이다.

키노모티브와 호남대 인터넷콘텐츠학과는 특수효과를 활용한 3D 입체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행결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거나 제작 과정 참여 학생을 취업으로 연계했다.

더불어 '현장실습 학점제'를 이용해 정규교육과 현장실습을 하나로 묶었다. 올해 하계방학시에는 인터넷콘텐츠학과 학

생 3명이 키노모티브에서 현장실습 학점제에 참여해 학점 취득과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동시에 습득했다.

현장실습 학점제는 학생측면에선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키노모티브(대표 이사 박용정)는 한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컴퓨터 합성영상기법) 관련 업체로 아시아 북북버스터 영화의 CGI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작품에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스캔들, 마음, 삼국지 용의부활, 말아톤, 오브라더스 등의 시각효과를 작업한 업체다.

호남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양승화 단장은 키노모티브와의 실무형 스튜디오나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등이 취업 연계 성과가 좋아 올해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재교육 없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응도 좋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서 여학생들을 위한 진로박람회 열려요"

조대여고, 17일 동문 여성 전문직업인 31명 초청 직업 상담

광주지역 여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여성 직업인 31명으로 대규모 강사진을 꾸린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조대여고(교장 국석표)에 따르면 오는 17일 모교 출신 여성 직업인 31명이 강사로 나서 직업을 소개하고 진로를 상담해주는 제1회 직업인 초청 진로 박람회를 연다.

조대여고 진로진학상담부(부장 교사 김연희)가 주관한 이 행사는 재학생이 모두 여학생인 점을 고려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여성 전문 직업인만으로 강사진을 꾸렸다.

학교측은 학생 진로설계에 실제 도움

을 주기 위해 재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 희망 직업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각 분야에 걸쳐 모두 31명의 동문을 강사로 초청했다. 학생(동아리 NOLBU)들도 선배들을 강사로 섭외한 데 이어 이번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다.

관사, 대학교수, 의료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31개 교실에서 각각 40분씩 두차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 선택 동기부터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 비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조대여고는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이

직업 체험활동에서 제작한 '희망직업 명함', '꿈 너머 꿈' 액자를 교실 복도에서 전시하고 이들 작품에 친구·교사들이 격려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는 행사를 갖는다. 행사 말미에는 초청강사와 학생들이 미래 꿈과 소망을 담은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연다.

조대여고 진로학상담부 김연희 교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여성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차별화된 진로·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실무능력강화 특강·전시회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학과장 김지연)가 학생들의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전공 특강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1년도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사업 일환으로 최근 송촌캠퍼스 복식전공실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는 국내 최고의 커리어여성복 브랜드인 (주)부래당 뽀랭팡의 홍효정 실장의 '성공에감! 성공적인 인턴십 과정과 취업전략'과 (주)idou 감미선 실장의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기획 실무과정 및 패션쇼 퍼포먼스의 주요업무 소개'가 진행됐다.

또 5층 시청각실에서는 2011년도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 사업에 참여한 4학년 학생 총 6명이 여름방학기간 기업체 2곳에서 실시한 인턴십 과정내용과 그의 성과물인 소재행거 총 15점, 트렌드맵, 소재기획맵, 디자인인텔과 브랜드 생산제품에 참여한 시제품 총 6점이 전시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사업은 기업맞춤형 커리큘럼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인턴십 과정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등 참여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서영대 취업지원팀, 한국전문교육협회장상

서영대학교 김재식 취업지원팀장이 최근 서울교육문화관에서 열린 '2011 전문대학 교육포럼'에서 한국전문교육협회회장상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해외현장실습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글로벌 실무경험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자세로 임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로부터 인증 받은 서영대 취업교육시스템을 적용해 재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송원대 야구단, 독거노인에 연탄배달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야구단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회인야구단(단장 선종석) 단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광주시 남구 노대마을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연탄배달과 경로당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Book advertisement for '우리는 M을 옮기려 했다' by 김태랑. Includes book cover image and publisher information (이오북스).

Book advertisement for 'THE BUCK STOPS HERE' by 토머스 J. 크라우포월. Includes book cover image and publisher information (이오북스).

우리는 M을 옮기려 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온몸을 감고 휘도는 강력한 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걸어온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너무나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경남 창녕 출신, 부산수산대학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신민당 입당(1971년), 김대중총재 정치특보 제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인사위원, 국회사무총장 역임



(주)이오북스 전화 02)3666-2525 www.eobooks.com